

청년의 시선으로 본 지역사회 가족·돌봄서비스 - 2023 가족·돌봄서비스 청년발굴단 활동을 중심으로 -

정윤미(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전략사업센터 연구원)

김수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전략사업센터 연구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전략사업센터는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가족·돌봄서비스 청년발굴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가족·돌봄정책을 청년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활동을 진행하였음
 - 34명의 청년발굴단이 참여하였음.
 - *1차(우리동네 가족·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파악), 2차(우리동네 가족·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체험해보기)
 - 가족·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파악 및 프로그램 체험은 △청년의 자기돌봄(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지원, 1인가구 지원, 각종 고민 상담(정신건강·학업·취업 등), 정보요청(주거·금융 등), 공간대여 등), △가족돌봄(치매환자 가족, 중증환자가족, 장애인가족 지원), △아동돌봄(자녀, 조카 등 영유아·아동돌봄, (예비)부모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음
- 발굴단원들이 1·2차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가족·돌봄서비스 제공 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안한 것은 △효과적 정보 제공 및 홍보 확대 △이용 대상 및 시간 확대를 통한 접근성 제고 △일정 기간 지속되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 등임

들어가며

- 인구·가족구조 변동에 따라 가족 구성 및 친밀한 관계 형성, 가족 돌봄과 일·학습 병행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증가하면서, 1인 가구,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이 정책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¹⁾

1) 치매환자 및 중증질환환자,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이 있거나 본인이 주돌봄자 역할을 담당하는 가족돌봄청년은 약 30만명 규모로 추산되며(동아일보(2023.4.27). "가족돌봄청년 41%, 복지지원 못받았다"(최종검색일: 2023.8.8.) 자료원별(인구주택총조사, 건강보험 빅데이터, 전국 일·생활 균형실태조사, 청년 삶 실태조사, 가족돌봄청(소)년 설문조사 등)로 가족돌봄청년 추정치를 살펴보면 주돌봄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청년은 조사 대상의 0.6%~4.3%로 추정됨(함선유(2023). 가족돌봄청(소)년 현황과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319, 34-36.)

-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청년들은 일상에서 돌봄, 심리지원 및 교류 등 지역사회 관계기관의 서비스 연계가 필요함에도 최근 연구에 의하면 전체 청년 응답자의 4분의 3 정도가 청년 정책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거의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²⁾

■ 오늘날 자기돌봄 및 가족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청년의 시각에서 지역사회 가족·돌봄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직접 체험을 통해 개선과제를 제안하는 활동이 필요함

- 현재 청년들의 삶터인 지역사회 수준에서 청년돌봄, 가족돌봄, 아동돌봄 등 여러 유형의 가족·돌봄서비스가 추진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청년 본인의 욕구 탐색을 통해 가족·돌봄서비스 제공현황을 직접 파악 및 체험해보고 개선과제를 제안하는 과정이 필요함
- 특히 서울/수도권/대도시/지방 등 지역별 분포를 고려한 청년 모집을 통해, 이들이 직접 수집하고 체험한 가족·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및 프로그램 내용 등에 지역별 혹은 동일지역 내 행정구역별로 대상별 서비스 제공기관 수나 분포, 프로그램 내용 등에 편차가 있는지, 이에 대한 청년들이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

■ 이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전략사업센터는 2023년 가족·돌봄서비스 청년발굴단 운영³⁾을 통해 지역사회 가족·돌봄정책을 청년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계기를 마련함

- 가족·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파악 및 프로그램 체험은 △청년의 자기돌봄(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지원, 1인가구 지원, 각종 고민 상담(정신건강·학업·취업 등), 정보요청(주거·금융 등), 공간대여 등), △가족돌봄(치매환자가족, 중증환자가족, 장애인가족 지원), △아동돌봄(자녀, 조카 등 영유아·아동돌봄, (예비)부모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음

2) 정세정 외(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최근 3년간 성평등전략사업센터는 코로나19 시기 성평등 이슈(2020), 일터문화(2021), 젠더갈등(2022)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청년·시민이 참여하는 정책현장 모니터링 및 정책·의제 발굴 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음.

- 2020년 코로나19 시기 청년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성차별 문제를 파악하고 정책 제안을 작성함. 상호 대화와 소통 기회를 마련하여 고립되어 있던 청년들의 비대면 연대의 장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 2021년 성평등 관점의 일터문화 혁신을 위한 50여 개 정책과제 발굴, 여성가족부 '21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정책 대국민 공모사업에 연계하여 1개 과제가 장려상을 수상함
- 2022년 청년층 젠더갈등 현황을 파악하고, 남녀 청년들이 직접 만나서 갈등 이슈에 대한 해법을 토론했던 자리를 마련함. 제안된 젠더갈등 완화 정책과제 중 우수과제 5개를 선정하여 성별영향평가 의제 발굴 시 제안함

2023년 가족·돌봄서비스 청년발굴단 운영 개요

■ 모집 및 선정 현황

- 가족·돌봄서비스 청년발굴단 모집은 2023년 8월 17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되었으며 총 103명이 신청하였음. 이 중 본인 또는 가족이 현재 처한 상황과 가족·돌봄서비스와의 밀접성 등을 고려하여 총 44명을 선정하였으며 최종 선정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1> 2023 가족·돌봄서비스 청년발굴단 선정 현황

구분	구성
성별	여성 28명(63.6%), 남성 16명(36.4%)
연령대	20대 29명(65.9%), 30대 15명(34.1%)
지역별	서울 10명(22.7%), 경기 6명(13.6%), 경남 6명(13.6%), 대구 5명(11.4%), 인천 4명(9.1%), 울산 3명(6.8%), 강원 2명(4.5%), 부산 2명(4.5%), 경북 2명(4.5%), 제주 2명(4.5%), 충북 1명(2.3%), 전북 1명(2.3%)
관심 서비스	청년돌봄 30명(68.2%), 아동돌봄 8명(17.8%), 가족돌봄 6명(13.6%)

자료: '2023 가족·돌봄서비스 청년발굴단 운영(내부자료)'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 활동 내용

- 가족·돌봄서비스 청년발굴단 활동은 총 1, 2차로 진행되었으며 1차 활동의 경우 본인이 거주 중인 지역의 가족·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을 파악해보고 거주지를 중심으로 서비스 지도를 그려보는 것으로 진행하였음
- 2차 활동은 본인이 거주 중인 지역의 가족·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이용해보고 개선점을 발굴해보는 것으로 진행하였음. 서비스는 프로그램(체험, 자조모임 등), 상담(교육, 정보제공 포함), 대여(공간제공 또는 기구·교구 대여) 등 위주로 이용하되, 노인, 장애인, 아동 대상 서비스의 경우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기 어려우므로 '비대면 이용(전화, 문자, 메일 등)'도 가능하도록 하였음

<표 2> 2023 가족·돌봄서비스 청년발굴단 활동 현황

구분	활동 내용	비고
1차 활동 우리동네가족·돌봄서비스 현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거주 중인 지역의 가족·돌봄서비스 제공현황을 살펴보고 서비스 지도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활동 보고서 제출
2차 활동 우리동네 가족·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이용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거주 중인 지역 내 가족·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 프로그램 참여 등 진행 ● 기관 사업에 대한 건의 사항, 청년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활동 계획서 사전 제출 ● 2차활동 보고서 제출
최종보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2차 활동결과 공유 및 우수활동 표창 	

자료: '2023 가족·돌봄서비스 청년발굴단 운영(내부자료)'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1차 활동 결과: 우리동네 가족·돌봄서비스 지도 그리기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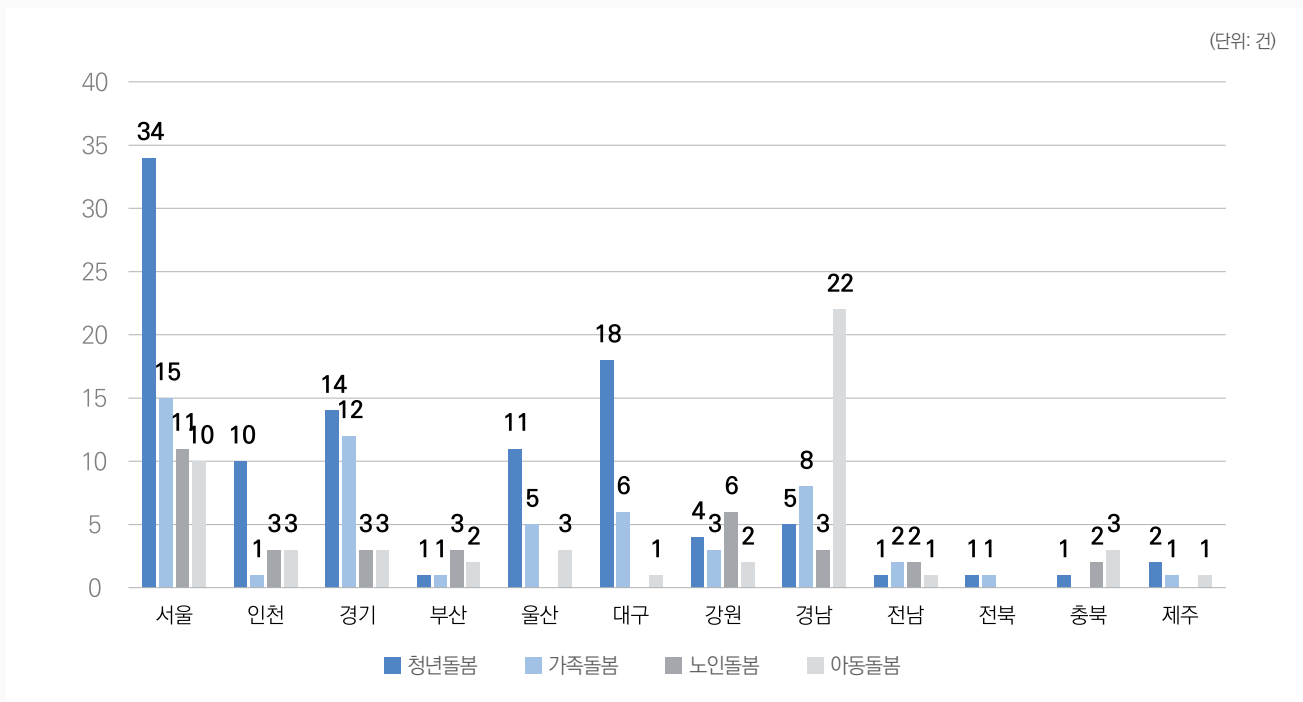
■ 가족·돌봄서비스 청년발굴단은 1차 활동으로 본인이 거주 중인 지역에서 청년돌봄, 아동돌봄, 가족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거주지 중심으로 가족·돌봄서비스 지도를 그려봄으로써, 지역 내 기관 현황과 분포, 접근성 등을 파악해보고자 하였음

● 청년발굴단 총 44명 중 37명이 1차 활동에 참여하였음

- 서울 10명(27.0%), 인천 3명(8.1%), 경기 5명(13.5%), 부산 1명(2.7%), 울산 3명(8.1%), 대구 3명(8.1%), 강원 2명(5.4%), 경남 6명(16.2%), 전남 1명(2.7%), 전북 1명(2.7%), 충북 1명(2.7%), 제주 1명(2.7%)임

● 청년돌봄기관 102개, 가족돌봄기관 55개, 노인돌봄기관 33개, 아동돌봄기관 51개 등 총 241개 기관이 발굴 되었으며, 수집한 가족·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별·유형별 현황은 <그림 1>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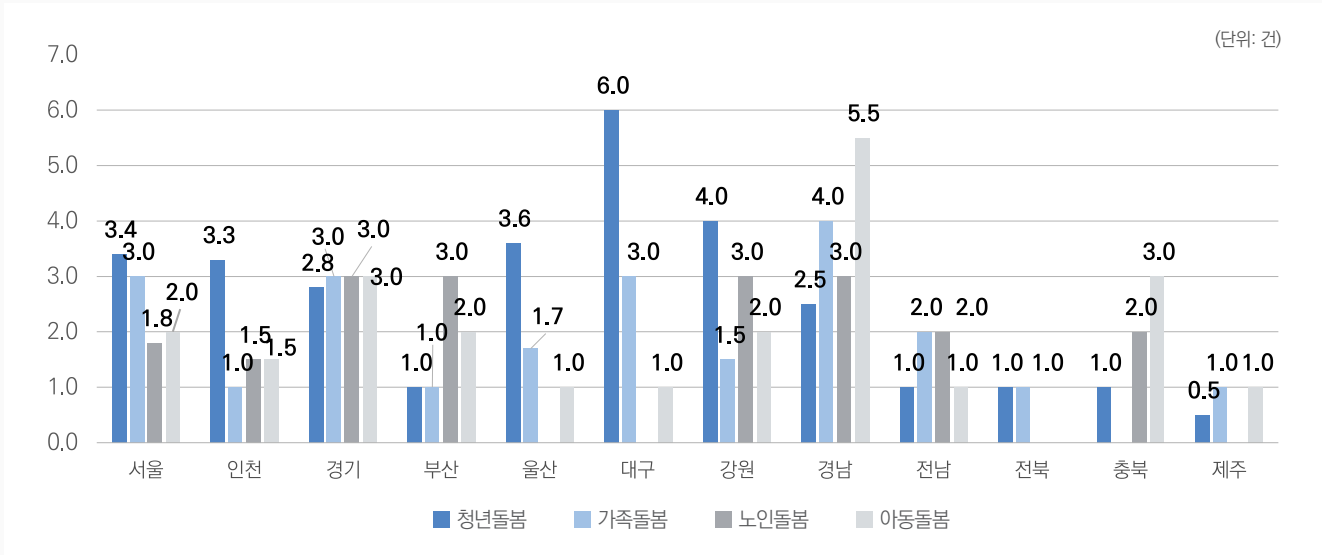
<그림 1> 지역별·유형별 가족·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발굴 현황



4) 가족돌봄서비스 현황 파악은 발굴단원이 가진 자원과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음. 이에 따라 개인별, 지역별 편차가 있을 수 있으며, 지역 내 수많은 가족·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함에도 본 브리프에는 모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혀둠

● 지역별·유형별 가족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발굴 건수를 지역별 참여자 수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림 2>와 같음

<그림 2> 지역별 참여자 평균 가족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발굴현황



■ 1차활동 결과, 서울, 경기, 대구, 인천, 울산 등에서는 청년돌봄, 부산과 강원에서는 노인돌봄, 경남과 충북에서는 아동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굴되었음

- 서울시의 경우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청년센터 ‘오랑’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청년관련 기관에서 상담/공간대여/1인가구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었음. 강원도와 부산시의 경우 지역 내 높은 노인인구 비중으로 노인돌봄기관이 비교적 많이 발굴되었고, 경남에서는 아동돌봄기관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반면 청년돌봄기관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기관 이용 시 원거리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음
- 인천시 부평구와 중구의 경우 가족센터에서 1인가구와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으며, 특히 중구 영종도에는 가족돌봄서비스 이용 간 지역격차를 해소하고자 가족센터와 치매안심센터 분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음
- 경기도의 경우, 행정구역별로 청년돌봄기관의 분포에 편차가 있다고 발굴단원들은 지적함. 즉,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내 청년인구비중이 상대적으로 타 시에 비해 높음에도 청년돌봄기관이 부족하고, 그나마도 홍보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해 아쉽다고 하였음
- 제주도는 최근 지역 내 ‘은둔형 외톨이’ 현황 파악에 나선만큼, 은둔형 외톨이지원센터가 설립되면 많은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음

■ 1차활동을 통해 발굴단원들은 △효과적 정보제공 및 홍보 확대, △부모교육 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돌봄서비스나 관련기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가족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사업내용을 수집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움
 - 발굴단원들은 지역 내 많은 돌봄기관들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이 한 곳에 모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어느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워, 돌봄기관에 대한 정보들을 하나의 사이트에 모아두거나 지역 내 전문가가 중간에서 자원을 연계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 지역 내 다양한 가족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존재함에도 홍보 부족으로 인해 본인 포함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이 외에 가족센터 내 청년돌봄 프로그램 확대, 부모교육의 경우 예비 신혼부부와 예비부모까지 참여 확대, 부모 교육 참여 시 아이동반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2차 활동 결과: 우리동네 가족·돌봄서비스 이용해보기

■ 가족·돌봄서비스 청년발굴단 2차 활동은 본인이 거주 중인 지역 내의 가족·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 프로그램 참여를 함으로써 기관 사업에 대한 건의사항 및 청년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음

- 2차 활동은 2023년 9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약 5주간 진행되었으며, 총 34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2차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였음

■ 청년발굴단 2차 활동의 서비스 유형별, 제공기관별 이용자 수는 아래와 같음

● 서비스 유형별 이용 건수

- 수공예, 여행 등의 체험활동이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담이 7건, 서비스 기관 담당자 인터뷰나 프로그램 관찰 등의 간접체험,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 등 기관의 고유 서비스 이용이 각각 5건이었음. 대담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은 각각 3건, 1건이었음

● 서비스 제공기관별 이용 건수

- 발굴단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곳은 청년센터로, 12명이 청년센터를 이용하였음. 그 다음으로 가족센터 11명, 1인가구 지원센터 이용자가 2명이었음. 기타 기관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건소나 지자체 위탁기관 등 지자체 2곳을 포함하여 지역아동센터, 지역문화센터, 노인주간보호센터, 청소년센터 등을 9명이 이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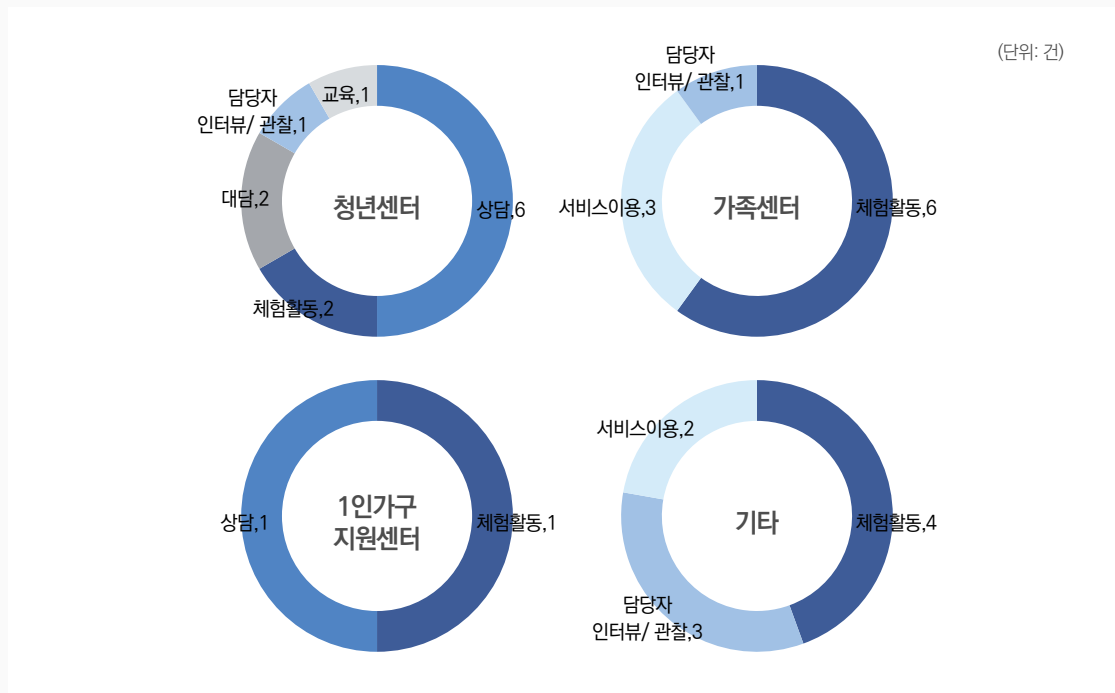
● 서비스 대상별 이용 기관 수

- 청년돌봄 수요가 있는 발굴단원이 가장 많이 접근한 곳은 청년센터(9명)였으며, 가족센터와 사회복지관이 각각 1명이었음. 1인가구 돌봄 수요가 있는 발굴단원들은 가족센터(4명)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그 다음이 청년센터(3명), 1인가구 지원센터를 이용한 단원은 2명이었음. 1인가구 지원센터가 있는 지역이 많지 않은 데 비해 전국에 있는 가족센터에서도 1인가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아동돌봄을 위해서 가장 많이 이용한 곳은 가족센터(5명)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지자체 위탁기관 등을 각각 1명씩 이용하였음. 노인돌봄을 위해서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해 본 발굴단원이 1명이었으며, 다양한 가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가족센터, 정신건강을 위해 지자체 보건소, 청소년 돌봄 현장에 대한 관찰을 위해 청소년센터, 기타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지역문화센터를 각각 1명이 이용하였음

● 서비스 제공기관별·유형별 이용 건수

- 청년센터에서 이용한 서비스 유형은 상담 5건, 체험활동 및 대담 각각 2건 순이었으며, 가족센터에서 이용한 서비스는 체험활동 6건, 서비스(공동육아나눔터 등 기관 고유 서비스) 이용 3건이었음.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는 체험활동과 상담의 이용건수가 각각 1건이었으며, 기타 기관(지자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센터, 지역문화센터, 노인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관,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체험활동 4건, 담당자 인터뷰/관찰 3건 순이었음. 기타 기관을 이용한 발굴단원 중에서는 서비스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담당자 인터뷰/관찰로 대체한 경우가 많았음

<그림 3> 서비스 제공기관별·유형별 이용 건수



■ 서비스 제공기관별 서비스 이용 결과분석

● 청년센터

- 발굴단원들이 청년센터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서비스는 상담이었음. 상담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 이유는 청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서비스이자 청년 대상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청년들은 주거 문제나 심리, 정신건강 등에 대한 상담을 받고자 하였으며 가족 돌봄 또는 자기 돌봄과는 별개로 이직 및 진로에 대한 상담 수요도 있었음. 청년센터에서 청년의 수요에 적합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현재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이OO)

“지역 내 1인가구를 위한 상담서비스가 있었지만 하반기 사업이라서 거의 끝나가 있고 ...

온라인 청년센터를 알게 되어 현재 이직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진로상담을 택함”(문OO)

- 상담은 화상으로 진행되어 시공간적 제약이 대면 상담에 비해 적다는 점에서 많은 참여자들이 만족하였지만, 장기간이 아닌 일회성이라는 점, 상담으로 충분히 고민이 해결되지 않아 상담사의 전문성 또는 상담 서비스가 목표하는 바가 청년의 눈높이와 상이하다는 점에서 불만족하였다는 의견이 우세하였음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무료로 일대일 상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장점”(정OO)

“대면이 아닌 줌 비대면 진행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좋았음”(박OO)

“상담 자체가 지속성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1인 2회는 너무나 짧은 횟수로 상담 자체에 대한 효과성을 입증하기는 어려웠음”(박OO)

“1회성(단기) 상담이 아닌 꾸준히 한 명의 멘토(상담사)와 상담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면”(김OO)

“단순하게 되묻는 방식으로 상담 시간 대부분을 보냈으며 상담 종료 후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소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이OO)

- 두 번째로 많이 이용한 서비스 유형은 체험활동인데, 수공예나 영화감상 등을 위해 비슷한 고민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 체험활동도 하고 대화를 나눌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이에 대한 수요를 가진 참여자들이 참여하였음
- 체험활동의 경우는 제공되는 공예활동의 생산품이 체험활동 주제인 자취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작 사용하기 어려워 실용적이지 못했고, 청년 관련 영화 관람에는 만족하였으나 추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입욕제 만들기도 좋았지만 사실 자취생들의 경우 대부분 욕조가 없어 대야에 넣고 족욕을 하거나 비누처럼 사용해야 한다. ...

좀 더 실용적인 것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면 더 좋았으리라 생각된다.”(김OO)

“주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편한 분위기에 할 수 있어 좋았지만, 진행자님께서 체계적으로 시간분배나 순서를 정하지 않고 대화시간을 진행하다 보니 프로그램 주제였던 ‘자취’, ‘주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지 못한 듯해서 아쉬웠다”(김OO)

- 시설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였음. 특히 접근성의 경우, 청년센터 이용자는 대다수가 수도권 거주자였으며, 청년 센터가 지하철역 인근으로 도보로 무리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음. 수도권 이외에도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1명), 온라인 청년센터를 이용한 경우(1명)이어서 접근이 수월했던 것으로 추측됨

● 가족센터

- 가족센터를 이용한 청년발굴단 참여자는 체험활동을 가장 많이 신청하여 체험하였음.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활동으로는 ‘글라스 아트(건강한 여가활동 지원)’, 지역의 명소 여행, ‘1인가구 대상 요가 프로그램’, ‘엑세서리함 만들기(여성 1인 커뮤니티 사업)’ 등이 있었음.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아빠와 함께하는 숲 체험’이 있어 예비 아버지인 발굴단원이 참여하였음
- 가족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청년들도 체험활동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고립감을 해소하며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기를 기대하였음

“1인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 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이는 나아가 친목도모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김OO)

“여성 1인 가구 ‘커뮤니티’ 사업이라 네트워킹하고 싶어서”(이OO)

“은둔생활을 피하고 좀 더 활동적인 생활에 참여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취미 문화 생활을 통해 힐링과 마음 정화가 되며, 은둔·고립 청년에 대한 서비스 중 가장 필요한 서비스이기도 해서”(한OO)

- 가족센터에서 진행하는 1인가구 또는 청년 대상 체험활동에 대해 발굴단원들은 고립·은둔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며 특정 활동을 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데에 만족하였음. 다만 이들이 기대한 만큼 네트워킹의 효과는 얻지 못함. 수공예 활동이라면 만드는 행위에 시간과 주의를 빼앗겨 다른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다고 함. 일회성 체험활동을 통해 네트워킹 활동을 하는 것은 개인의 친화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는 청년센터와 달리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등 집단 내 공통점이 적어 친밀감을 형성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추측됨. 반대로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참여 대상을 제한하거나 요가와 같이 특정 성별이 주로 참여하는 활동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제한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기 어렵게 되는 점을 통해 봤을 때, 가족센터의 프로그램이 성별화되어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커뮤니티나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아쉬웠다. 참가자 중 또래로 보이는 친구와 이사온 지 얼마 안된 분이 계셨는데 말을 걸어보고 싶었으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다”(이OO)

“혼자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 고립을 느낄 수 있으므로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음 ... 다양한 문화, 성별, 연령 및 경제적 배경을 고려해야 함. 여성들이 주로 참여하는 요가라는 프로그램 대신 금융교육, 배드민턴, 테니스 등 커뮤니케이션과 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좋을 것 같음”(김OO)

- 다음으로는 아동돌봄 부담 경감을 원하는 발굴단원의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이 많았음. 이들은 다른 서비스를 찾아 보았으나 소득 등 서비스 이용가능 기준을 충족해야 하거나 유료서비스여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게 되었다고 하였음. 각각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 가족품앗이, 영유아 오감놀이, 영어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음

“돌이 지난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백화점이나 마트 문화센터가 거리가 멀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여기 저기 검색해본 결과 무료로 00시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었다”(오OO)

“아동(자녀) 돌봄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지역 내 기존에 있는 서비스는 적합한 서비스를 찾지 못함 (주로 소득기준이나 아동의 연령)”(이OO)

-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발굴단원들은 육아부담 경감 및 내용이 좋고 자녀에게 새로운 체험을 하게 해 줄 수 있었다는 만족감을 표시함. 다만 원하는 시기에 바로 참여할 수 없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음

“영어를 처음 접하는데 부담이 없이 부모님과 한 공간에서 참여할 수 있어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한OO)
 “우선 활동을 바로 참여할 수 없어서 아쉬운 마음이 컸음”(이OO)
 “아쉬운 점은 자주 이런 프로그램이 없고 선착순이며 한번 무단불참 시 다음 참여가 어렵다는 점이다”(오OO)

- 가족센터는 전국 244개⁵⁾로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분포하고 있지만, 접근성은 지역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 발굴단원은 영남지역 광역시의 한 가족센터를 이용했는데 지하철역에서 도보 3~4분으로 접근성이 좋았다고 한 반면 같은 영남지역 소도시의 한 가족센터를 이용한 다른 발굴단원은 대중교통 배차간격이 길어서 프로그램 참여자가 모두 자기 차량을 이용했다고 하였음

● 1인가구 지원센터

- 발굴단원이 이용한 1인가구 지원센터의 서비스는 공방 체험활동과 1인가구 상담 프로그램 각 1건이었음. 공방 체험 활동은 먼저 스트레스 척도를 측정하여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을 선발하여 참여토록 하고, 우드트레이 만들기에 이어 차담(茶談)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 참여자 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여 발굴단원이 만족감을 표했음. 1인가구 상담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무료 심리상담이었으나, 대기자가 많아 대기 기간이 2~3개월에 달하여 발굴단원이 접수상담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
- 발굴단원이 이용한 공방 체험활동의 경우 앞서 청년센터나 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수요자의 기대보다 네트워킹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대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고립·은둔 예방 및 고독감 해소라는 목적 달성에 적절해 보임

“단기간에 완성된 결과물을 통해 소소한 만족감을 얻고 같이 참여한 사람들과 동질감이 생겨 대화의 장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 모든 활동에도 심리회복활동처럼 차담 시간이 생긴다면 관계망 형성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김OO)
 “매칭까지 대기자가 많아 2~3개월 소요 … 상담대기가 2주 이내로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박OO)

● 기타 기관

- 청년센터나 가족센터 등에서 청년을 위한 서비스를 찾지 못한 경우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관 등에서도 청년을 위한 원데이 클래스 등 네트워킹을 추구하는 체험활동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음
- 아동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거나 방과 후 아동이나 청소년 돌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발굴단원들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이용 또는 관찰하는 방식으로 체험하였음

5) 2023년 11월 기준. 가족센터 홈페이지 - 지역센터안내 (<https://www.familynet.or.kr/web/lay1/program/S1T1C307/info/view.do>, 최종검색일: 2023.11.21.)

-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발굴단원의 서비스 이용은 노인주간보호센터 간접체험 1건에 그쳤는데,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청년 당사자를 특정하여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찾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됨. 노인 돌봄 서비스를 체험한 발굴단원은 조부모가 이용하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진행하는 서비스를 취재하였고 당일 진행된 프로그램을 조부모와 함께 체험하기도 하였음. 주간보호센터는 가족돌봄청년을 대신하여 노인 돌봄을 전담하는 기관이므로 영케어러의 돌봄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서비스이기는 하나, 본 발굴단 운영 사업에서 발굴하기 원했던, 좀더 직접적으로 가족돌봄 '청년'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볼 수 없었음. 그러나 한편으로 가족돌봄청년 당사자가 가장 필요했던 것이 주간의 돌봄 부담 경감이었다면, 주간보호센터 이용이 이 발굴단원에게는 매우 필요성이 높고 스스로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임. 이렇게 본다면, 가족돌봄청년에게 별도의 직접적인 지원 서비스 신설이 아닌 기존의 노인·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대상 확대나 사각지대 해소 등 기존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을 것임

시사점

■ 발굴단원들이 1·2차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가족·돌봄서비스 제공 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안한 것은 △효과적 정보 제공 및 홍보 확대 △이용 대상 및 시간 확대를 통한 접근성 제고 △일정 기간 지속되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 등임

- 지역사회 가족·돌봄서비스에 대한 기본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관련 기관을 일일이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가족·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관한 정보를 하나의 웹사이트에 모아두거나 청년의 수요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중간 매개자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기관 및 제공 프로그램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청년에게 다가가기 쉬운 적절한 수단을 활용한 홍보 또한 강화해야 할 것임
- 청년센터 등 일부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청년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채 대학이나 직장 기숙사 등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지역 실거주자나 인근 시·군·구 거주자 등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청년들이 자신의 거주 지역에서 실제 청년센터 등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평일보다는 주말인데, 토요일 운영 시간이 평일보다 짧거나 일요일에는 운영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 적절한 운영 시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가족센터 부모교육 운영 시 예비 신혼부부와 예비부모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부모교육 참여 시 아이동반 참여도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음
- 청년, 1인가구 대상 상담이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해당 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진행되거나 일방적인 정보 전달에 그쳤다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아, 일정 기간 안정적인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자들의 고민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참여자들 간의 만남이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한편 가족센터는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 청년센터는 각종 상담이나 정보 제공을 위주로 청년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청년들이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가족센터와 청년센터 간 연계가 필요함

- 청년발굴단원들이 이용한 서비스를 통해 비교해 볼 때, 청년센터는 청년에 일대일 상담이나 정보 제공을, 가족센터는 고립·은둔을 막는 취지로 함께 모여서 활동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됨. 이는 두 기관의 설립 취지에 걸맞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각 영역에서 서비스를 심화 제공한다면 서비스 중복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없기 위해서는 청년이 더 쉽게 접근하는 기관이나 플랫폼에서도 가족센터의 고립·은둔 청년이나 자기돌봄 관련 서비스로 안내해주는 등 두 전달체계간 연계가 필요함

■ 가족돌봄청년 대상의 서비스는 크게 발굴되지 못했으나 가족돌봄청년 당사자인 발굴단원의 필요에 의해 이용한 서비스가 조부모의 주간보호서비스였다는 점은 가족돌봄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서비스는 기존 돌봄서비스의 대상 및 영역을 확장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 다만 기존 노인·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의 보호자가 학업이나 일을 돌봄과 병행하는 청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비스 이용 시간이나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방식을 다양화하거나 가족돌봄청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 참고문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동아일보(2023.4.27.). "가족돌봄청년 41%, 복지지원 못받았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427/119027654/1>, 최종검색일: 2023.11.27.)

변수정·오신휘·조성호·김은정·이혜정(2022).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가족돌봄 청(소)년 설문조사' 1, 2차 조사 원자료.

정세정 외(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국무조정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202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3). 2023 가족·돌봄서비스 청년발굴단 운영(내부자료).

함선유(2023). 가족돌봄 청(소)년 현황과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2023년 5월 통권 제319호, 34-46.